

buddhanews.com

허허 웃을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옵니다!

25면에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주인공 뿌리, 너만이 네 다리를 고쳐 줄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자식들한테 '애! 요즘 들어, 널더러 돈 달래지 않을 테니까 저기 좀 데려다 나오.' 그러세요. 자꾸 데려다 달라고 그러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공덕도 세워 놓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손들이 믿고 효도를 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러는 것만 스님네들이 봐도 덕의 다리가 훨씬 쉽게 나를 걸니다. 사람은 자식들이 그렇게 효도를 하면요, '어, 저렇게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극하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아휴, 저렇게 지극한데...' 하고 오면서 가면서 다 보는 게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질문: 스님,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대부분 본전도 못 건지고 망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여러분 중에는 병고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회사를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장사를 하다가 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장사를 할 때는 육안으로 심안으로 나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잘 챙겨 봐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며 거기에 맞는 어떠한 장사를 해야 좋겠느냐, 또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남의 돈을 얻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남는다 하더라도 남의 돈으로만 시작을 한다면 이것저것 갖고 나면 본전이 밀려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되죠? 또 한 가지는 장소 문제입니다. 그 물건하고 장소하고 맞춰야 하는데 사람이 얼마만큼 쓸 수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보라고 해서 눈, 귀, 육근(六根)이 모두 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육경(六境)과 육식(六識)을 다 종합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곁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잘 잡아 놓고, 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인은 바로 너밖에 없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가다 팔려 놓는 이 도리가 그대로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대로 중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작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망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첫째,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만이 그것이 참선이 자 좌선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

하고 믿지 못한다면 마음조차 편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몸속에 든 의식들이 다 편안치 못합니다. 수습역의 의식들이 말입니다. 내 마음 쓰는 대로 몸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가져오고, 망하게 되면 그냥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캠핑 나왔는데, 다 무너지고 도둑을 맞고 걸머진 거를 다 집어 갔어도 산 입에 거머줄 치지 않는다는 법이 있죠.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도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허

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어떤 병이 들어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이 네 가지로써 치료도 할 수 있고, 바깥 경계의 모든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하시라고 실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실천하시라!

이 모든 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자유스럽게 살려면 나부터 알아야, 나의 직결돼 있고 가설돼 있는 이 근본부터 알아야 그 줄을 붙잡고 모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근본자리는 보이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는 똑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연결이 되질 않아요



허 웃을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게끔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아등바등하고 '이건 다 넘어갔으니까 다 족었다.' 하고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대로 가정이 불안하고, 헤어지게 되고 정말 죽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개구리가 개구리 알을 낳고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저게 왜 그러냐?' 그리고 그냥 물끄러미 보지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끌고 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난데없는 소나기가 그 일대를 다 휩쓸었습니다. 하다못해 개구리도 비 울 거를 알고 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올려다 놓는데, 하다못해 옥수수도 그 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알고 뿌리를 넓게 잡아서 쓰러지지 않게 자기 몸을 딱 세우는데, 하물며 사람이 내일 일을 생각 안 하고 오늘 텃밭대고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때때 따라서는 남의 집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 저 집은 너무 마음이 가난해서 생기는 게 없어.' 하고 새들이 안타까워서 지저귀고 이러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세소리로만 듣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그 모든 것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얘기를 했지만 공생(共生) · 공용(公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태양열을 끌어 쓰듯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씩씩이에 의해서 어떠한 거든지 끌어 쓸 수가 있는 그런 재료가 여러분 앞에 다 주어져 있다

지도 않고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허공은 안 그렇습니까? 잡히지도 않고 빛깔도 없지만 허공은 있듯이, 마음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역력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켜쥐려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하는 공부, 즉 말하자면 어떠한 거든지 재료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하면서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어떠한 용도든지 서슴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고 그것을 실행하고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셨지요?

스님과 한마음이 되려면

질문: 스님께서 소켓 애길 자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님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스파크 되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 주인공과 스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주 스님을 찾으려고 할 때 '주인공을 찾으면 되는데 왜 스님을 찾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답변: 나무와 나무, 일체 만물만생이 다 때에 따라서 찾는 것이지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닙니다. 부부기간도 그렇고 자식기간도 그렇고, 가족이 때에 따라서 내가 꼭 만나야겠다 이래야 만나지고,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해야 하는 거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데 그냥 찾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스님이 이거는 꼭 들어가 되

다 할 때에 자기 마음과...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영(靈)에다 영을 넣으면 영 하나도 돼 버리고, 그것도 영이죠. 그러니 이 마음이 있는 사이 없이 있고, 하는 사이 없이 하고 진실로 현재에 나오는 사이 없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하혈을 막 하는데 급하니깐 '스님, 스님 마음 좀 내 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그때나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꼭 그거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에 해당이 되죠. 사람마다 때에 따라서 급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 부족한 듯한 생각이 있으면, 무거운 것은 한 손으로 드는 거보다 두 손으로 들어야만 거뜰히 들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도 다 같이, 상황에 따라서 한 찰나에 일체제불이 들고 나신다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응신(應身)이 돼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그 나뉘는 것이 같이 응해서 하나가 돼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 평소엔 마음을 쓰면서도 자기 근본에 항상 묻고 말리고, 그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맡겨나 가신다면 쓸 일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모두가 응해주시는 도리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경지인지요?

질문: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는 화두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실히 되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일을 통통하게 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경지인지요? 스님께서는 단계 없는 세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단계인지요?

답변: 실천해 봐야 알고, 봐야 알고, 들어가야 알고 그렇듯이 맥에서 겪어 봐야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만큼 이치대로 얘기를 하려면, 사람을 다 낚기는 하되 애가 어른 노릇을 못하니깐 어른이 될 때까지 수행정진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린애도 생산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면, 내 육신이 태어났지 정신이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태어났으면 바로

육신을 이끌어 가는 참나, 즉 정신을 태어나게 하면 그것을 바로 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성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경성한 자체를 키워야 하니깐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리면 이 안의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에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갔듯이 모든 거를 또 놓고 들어가야죠. 내가 탄생한 후에도 이 체험하는 것을 또 놓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틀 아닌 도리를 또 알게 되죠. 틀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서 그때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열반경지에 든다' 이럴 때는 틀 아닌 도리에서 틀 아니게 화해서 나뉘면서 어느 만물만생이 원하더라도 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내 육신 속의 모든 의식들이 보살로 화해서 나뉘면서 돼지가 원하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되고 이렇게, 모두 중용을 할 수 있는, 광대 무변한 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능할 때, 이것을 도리천에 이르고 구경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모두를 그냥 말없이도 할 수 있고 말 없이 알 수 있고 이런 것이지, 지금 경성도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아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데 그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만 듣고 아무리 책을 보고 그냥 뭐 무뎠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물 한 컵을,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론도 필요 없고, 무공무진하게 이는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내가 나를 발견하고 어른으로 키워서 또 늙어와 된다. 늙으면 생각도 없다. 생각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없다' 하고 '끄달리지 않는다'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없다' 하는 거는, 들어가서 없다는 건 사실인데, 아래에 있던 중간에 있든 위에 있든 모두 포함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떼어 놓고 한 발 딛고, 내가 귀머거리에서 벗어나고 장애인에서 벗어난다면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나 찾기에 바쁜 거지, 그리고 나는 세 가지 두 가지를 한데 합쳐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첫번에 유(有)의 법을 가르치고 두번째, 무(無)의 법을 가르치고 세번째, 유와 무를 한데 합쳐서 가르치고 했던 것이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나는 행주좌와(行住坐臥)를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대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장 고통이 오고,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는데 어떻게 들고 앉아서 그거를 할까? 그러니까 애고가 오는 거를 오는 대로 밀쳐 나가고 타파해 가면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대한불교 무량종 종단 간부 임원 공고

大韓佛敎 無量宗은 2008年 11月10日 定期 中央總會에서 아래와 같이 宗團 幹部任員이 改編 되었음을 公告 합니다.

종정 해안효종 대종사

사서실장 보인 기획실장 종성

총무원장 보경

총무부장 서안 재무부장 보광

교무부장 보성 사회부장 원정

감찰원장 오현 교육원장 보산 포교원장 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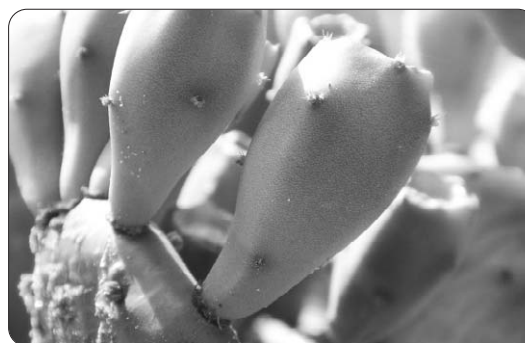
총회의장 범우 부의장 범장, 보월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상벌위원장 보각

불기 2552(2008)년 11월 10일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률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